

# 교계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 경내지 수용·진동 등 30여사찰 피해예상

90여 사찰 서명돌입  
중단협 “수행환경 저해”  
조계종 “공청회 실시”

인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주변에는 200m이내에 17개 사찰이 소재하는 등 30여개 사찰이 피해가 예상된다. 2006년 6월 29일 까지 공사차량의 출입으로 먼지와 소음, 터널발파에 의한 진동 및 건물 파손, 공사로 인한 신도 통행 불편 등으로 수행환경의 파괴는 물론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국립공원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사암련이 집계한 주요 사찰의 예상 피해상황은 진동 피해(송추원각사), 지하수맥 변화(회통사), 소음 및 비산먼지(덕천사, 흥법사, 원각사, 천인사, 보현사, 대원사, 약수선원), 경내지 수용(흥법사, 천인사, 보현사 등)이다. 이에 따라 12개 불교단체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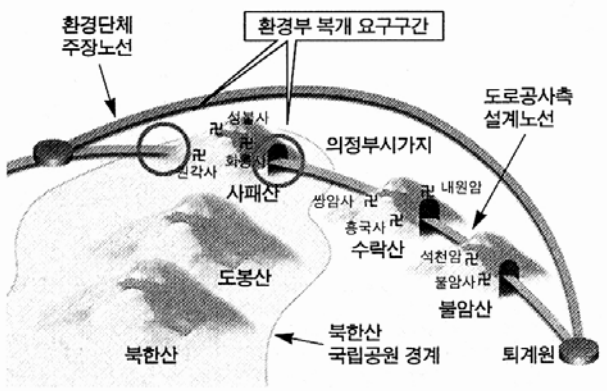
까지 사암연합회 소속 전 사찰에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 현수막을 설치하고 청와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회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조계종 및 제25교구 분사 봉선사, 관음종과 연대해 국회 건교위 및 환경위 국회의원과 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15일 개최된 임시사회에서 “총연장 25.3km의 8차선 외곽순환도로상에 교량 24개, 터널 5개, 유·출입 시설 3개소, 영업소 2개소 등이 건설될 경우 사패산, 수락산, 불암산 등의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찰수행환경 피해현황 조사 및 사찰 경내지 수용 절대 불가, 서명운동 등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의정부사암연합회 등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수용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건설 논란지역



북한산 관통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반대운동에 불교계가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를 비롯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 의정부불교신도회, 운전자봉사회, 경기북부불자연합회 등 12개 불교단체는 14일 의정부포교원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북한산 국립공원(사패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산 관통 고속도로는 국립공원 자연환경과 사찰 수행환경의 파괴, 교통난 가중 등을 가져오므로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조계종 및 관음종을 비롯 의정부 지역 90여개 사찰과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12개 불교단체는 9월 초 착공 예정



◇선재마을 의료봉사회가 12일 장수면사무소에서 무료진료하고 있다.

### 선재마을 의료봉사회

#### 영주 장수면사무소

12일 오전 9시 영주시 장수면사무소에 마련된 무료진료소에 50~60대 농촌 사람들이 연이어 들어왔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의 요청으로 선재마을 의료봉사회(회장 손진권)가 이곳을 방문, 무료진료소를 열었다.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계속된 이날 무료진료 현장은 요청이나 관철업 등 통증을 호소하고, 투약을 기다리는 136명의 주민들과 서울과 대구에서 온 12명의 의사와 간호사들로 분주했다. 특히 복지관 내 물리치료실 기자

오종욱 기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자중 26% “경기도서 온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현)가 서울시를 물론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즐겨 찾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13일 발표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6%가 경기도 거주자로 나타났다. 복지센터까지의 이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5%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라고 대답, 이를 뒷받침했다. 이동의 편리성을 묻는 질문에는 96.5%가 ‘편리하다’고 응답해, 중심가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이, 복지센터가 두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시설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서울노인복지센터가 6월 27일부터 6일간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3%가 ‘운영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으며, 90.2%는 ‘자원봉사자가 친절하다’고 대답해, 복지센터가 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센터에 설치한 시설 중에서 무료급식(26.7%), 샤워실(18%), 도서관(17.7%), 물리치료(10.3%)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개설 프로그램 중에서 체력단련(24.5%), 장기·바둑(16.3%), 당구·탁구(10.5%), 컴퓨터교육(10.3%) 등이 인기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97.2%가 ‘이용인원 과다’, 80.4%가 ‘이용자 무질서’를 문제점으로 지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종욱 기자

### 좋은 인(因)을 지읍시다

#### 진각종 총금강회 캠페인

####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백진호)는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좋은 인(因)을 지읍시다’는 슬로건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금강회는 최근 전국지부장 회의를 갖고 “좋은 인을 지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이 사회에 보다 넓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인을 지

어가는 슬로건을 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좋은 인을 지읍시다’ 확산운동을 할 하반기 최대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총금강회는 어깨띠와 스티커를 제작해 불자들과 단체 및 차량에 나눠주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으로 했다.

백진호 총금강회장은 “불자들부터 좋은 인을 짓자는 마음을 갖고 살면 이 사회가 한결 밝아지고 갈등과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캠페인에 진각종도는 물론 불자들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 위덕대-국회도서관

#### 학술정보 교류협정

진각종 위덕대학교(총장 손재석)는 7일 국회도서관(관장 최문후)과 정보의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학술정보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의 원문DB는 지난 70년대 이후 국내 사회과학분야 학위논문 18만건,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13만건을 비롯해 국회공보, 국정감사자료, 정부간행물, 고서자료 등 1만

6천여건이 구축돼 있다. 이번 협정으로 위덕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위덕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도 국회도서관에서 구축한 300만건의 서지데이터와 2천5백만 면에 이르는 ‘국회도서관 디지털 DB’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위덕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2년도부터 5개학과 신설 및 신입생 140명 증원을 받았다. 신설학과는 불교문화학과 창업경영학과 아동학과 건축설계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이다. 김중근 기자

#### ‘학교 밖 학교’ 캠프

#### 소년가장 등 1백명 참가

#### 위안부 할머니 ‘역사 교육’

위안부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만나 역사 캠프를 열었다. 불교계 위안부 할머니 보호 시설인 나눔의 집과 (사)H.O는 13~15일 강화도 유스호스텔에서 제1회 학교 밖 학교를 개최했다. 김순덕(81), 이옥선(75) 등 위안부 할머니와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및 장애어린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어린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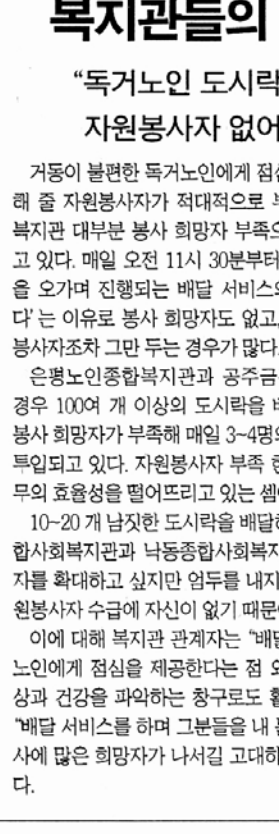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14일 ‘일일 역사교사’로 나서, 어린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고 ‘잘못된 일본 역사 교과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15일에는 새천년민주당 유상남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의사당 방문, ‘의사당 관람’,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종욱 기자

#### 복지관들의 고민

####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없어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점심 도시락을 전달해 줄 자원봉사자가 적대적으로 부족하다. 불교계 복지관 대부분 봉사 희망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먼 길을 오가며 진행되는 배달 서비스의 특성상, ‘힘들다’는 이유로 봉사 희망자도 없고, 신심을 낸 자원봉사자조차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 공주금강사회복지관의 경우 100여 개 이상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데, 봉사 희망자가 부족해 매일 3~4명의 복지관 직원이 투입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부족 현상이 복지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10~20개 남짓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과 낙동종합사회복지관도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싶지만 임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수급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계자는 “배달 서비스는 독거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한다는 점 외에도 그들의 일상과 건강을 파악하는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배달 서비스를 하며 그분들을 내 몸처럼 돌보는 봉사에 많은 희망자가 나서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 조계사-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생명문화학교’ 연다

9월6일~11월22일 조계사주지 지황가인드라망생명공동체와 함께 9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생명문화학교’를 연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생명살림의 문화를 가꿔 나가는 취지로 열리는 생명문화학교는 매일 네 차례의 강의와 현장학습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불교의 생명사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자’, ‘생명살림의 삶, 일상 속의 수행’, ‘생명을 살리는 사찰’ 등의 주제 아래 9월 6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병철(전국 귀농운동본부장)·유정길(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권영근(한국어촌사회연구소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02720-1390 한명우 기자

#### 불자련 ‘119봉사단’ 2기 발대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8일 서울 노원구 사천왕사에서 나무가꾸기 119 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119 봉사단 2기는 8~14일 ‘푸른서울가꾸기 2001 자원봉사자 교육’ 일정을 이수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119 봉사단은 서울시 가로수와 1대 1 결연을 맺은 ‘그린오너’ 과정을 거쳐, 거리와 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오종욱 기자

생명의 빛 神燈(신등)의 秘密(비밀)공개! (T.D.P치료기) - 중국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파, 생체 에너지,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반도체파, 초단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 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 파괴된 염색체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주며,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 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신비에 있다.) 블랙디스크(Black Disk)란 TDP치료기의 핵심장치로서 인체구성의 기본 원소인 30여종 무기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중성필) 1.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기린자염으로서 깊은 잠을 못자는 분 2.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피부염, 습진, 무좀 화상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3.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4.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소변에 이상이 있는 이노 장애자 5.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증으로 악성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6.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을 멎고 절인 증상 등 7. 전립선 기능장애와 생식기능 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8.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내막염 제증상) 9. 고질적인 치질·치루·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 전세계 발명품 금상수상 (중국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 임상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병원용겸 가정용) 한국 수입 품목 허가 번호 (01-506) 한국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곳 설치 사용중 ■ 미국 F.D.A에서 특정 자카파 (T.D.P) 치료기 인정 (K875052) ■ 유교 의료박람회 금상, 벨기에 부르셀박람회 은상 ■ ISO (9001) 획득, 한국 95년도 보건 복지부 인정 수입 T.D.P.치료기 대여 사업인기 /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소식 BLACK.DISK. 빛(光)과 파장을 이용한 신(新) 전강요법 ◆ 대서점 및 취급점 모집 중 ◆ (수입원) (주) 휴먼라이프 상담무료전화 : 주,야 080)522-2464 / H.P:019)614-2550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447-9114

마음고인 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